

금요 양성 2025년 11월 14일

단위 형제회와 나누시오.

2010년에 미국 재속형제회가 출판한 **섬기는 지도자 정신을 위한 안내서**에는 우리가 우수한 섬기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. 이번주에는 우리의 모델인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에게서 영감을 받는다. (재속 프란치스코 섬기는 지도자 정신을 위한 안내서 4-7쪽)

지도자로서의 예수님: 숙고할 사항들

- 예수님은 “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.” (마태 10,24) 라고 말씀하신다.
 -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가려면,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. (루카 9.23)
 - 예수님은 강한 호소와 조용한 설득으로 다른 사람을 당신의 미션에 동참시켰다.
- 예수님은 인내하셨고 제자들의 협동심을 길러, 사랑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셨다.
- 예수님은 그들이 당신의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다.
- 예수님은 그들에게 섬기는 지도자의 의미를 가르치셨다. 그들의 발을 씻으신 다음, “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,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.” (요한 13,15) 라고 말씀하셨다.
- 예수님은 진정한 지도자 정신은 사랑에 뿌리를 두며, 그것이 봉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다.
- 예수님은 미래 전부를 계획하지 않으셨다.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하느님 왕국의 열쇠를 주시어, 헌신된 사람들의 지도력을 통해 교회가 펼쳐지도록 하셨다.

섬기는 지도자로서의 성 프란치스코: 숙고 할 사항

- “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몇몇 형제들을 주신 후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무도 나에게 보여 주지 않았지만,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친히 나에게 거룩한 복음의 양식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.” (유언: 프란치스코 원천 초기문헌 1권 124)
 - 형제들은 모두 다 평등하다. 모든 형제들이 예수님을 따른다.
 - 지도자는 그들 모두의 종이다 - 다른 이들의 발을 씻어 준다.
- “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들 위에 서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. 오히려 하느님을 위하여 모든 인간에게 섬기는 사람,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.” (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보낸 후기 권고 및 권면 프란치스코 원천 초기 문헌 1권 148)
- 아무도 장상이라고 부르지 말고, 반대로 모두가 똑같이 작은 형제들이라 부를 것입니다. 그리고 서로 서로 발을 씻어 줄 것입니다. (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인준받지 않은 수도 규칙 6장 3-4절)

- 순종의 책임이 맡겨져 있고 더 큰 사람으로 여겨지는 이는 오히려 더 작은 이, 그리고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. (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, 후기 권고 및 권면, 프란치스칸 원천: 초기 문헌 1권 42)
- “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섬기러 왔다 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다른 사람들 위에 있게 된 이들은, 형제들의 발을 씻어 주는 직책을 위임받은 것을 자랑하는 그만큼 그 장상직을 자랑할 것입니다.” (권고 4 프란치스칸 원천 초기 문헌 1권 130)

섬기는 지도자로서의 성녀 클라라: 숙고할 사항

- “선출된 자매는 자기가 어떤 짐을 졌는지, 자신에게 맡겨진 양 떼에 대해 누구에게 섬을 바쳐야 할지를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. 그리고 원장은 직이 아니라 오히려 덕행과 거룩한 생활로 다른 자매들보다 앞서도록 노력할 것입니다. 이렇게 할 때 자매들은 그의 표양에서 자극을 받아 두려움보다 사랑때문에 그에게 더욱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.” (클라라 원천: 클라라의 수도 회칙 초기 문헌 114)
- 클라라는 언제나 자매들과 함께 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, 오히려 가장 하기 싫은 일들조차 스스로 맡아 수행하곤 했다.

그룹이나, 파트너와의 토론 또는 저널 쓰기 위한 질문들

+ 위의 인용구절들을 읽은 후에 예수님, 프란치스코, 클라라의 지도자 스타일중에서 어떤 것이 당신에게 와 닿는가?

+ 현재 또는 미래의 섬기는 지도자로서, 우리가 다른 사람의 “발을 씻는 것” 이 왜 중요한가?

+ 위의 인용구절 중의 어떤 것이 당신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가?

+ 도전: 이번 주에 위의 인용구절 각각을 기도해 보라. 현재나 미래의 섬기는 지도자로서 그 기술을 강화시켜 달라고 성령께 청해 보라. 형제회나 재속회에 제공할 수 있는 봉사에 대해 생각해 보라.